

경제동향

요 약

경 기 생산/출하/재고

고 용 취업자/실업자/불가

금 용 시장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요 약

경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기 회복세 불투명 - 산업생산의 감소폭은 크게 둔화되고 재고는 소폭 증가하여 여전히 뚜렷한 경기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음 - 산업생산은 작년 3월에 비해 2.0% 감소하고 생산자 제품재고는 4.8% 증가
고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고용여건 소폭 개선 - 실업률은 4.9%로 지난달에 비해 0.3%p 하락하여 6개월 만에 감소 ○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각급학교 납입금과 학원비, 석유류 인상 등으로 지난달에 비해 0.6% 상승
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하락세 지속 - 시중자금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예상 등으로 인해 금리는 하락세 지속 ○ 종합주가지수 큰 폭 하락 -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종합주가지수 45.68p하락 ○ 원/달러 환율 3월 중순 이후 급등 - 원/달러 환율은 3월 중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로 인해 급등 ○ 서울의 창업동향 개선 - 신설법인수는 1,925개 업체로 작년 3월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어음부도율은 안정세
부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설경기 침체 지속 -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3월에 비해 14.6% 감소하여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3%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표〉 3월 주요경제 지표

(단위: %, %p)

구 분		2004.3	2004.12	2005.1	2005.2	2005.3
경기	산업생산	3.0	0.0	0.2	-15.4	-2.0
	생산자 제품재고	27.0	9.8	9.2	4.6	4.8
고용	실업률	-0.2	0.4	0.3	0.0	-0.3
	소비자물가	1.0	0.1	0.6	0.6	0.6
금융	국고채(3년)	-0.28	-0.03	0.78	-0.02	-0.13
	환율	-29.6	-13.1	-9.5	-19.6	9.5
부동산	건축허가면적	-25.8	-51.7	-35.9	-23.5	-14.6
	주택매매가격	0.5	-0.4	-0.3	0.6	0.3

주: 증감의 비교시점은 전년동월대비임, 단 금융, 고용, 주택매매는 전월대비임

| 생 · 산 |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

✓ 전국의 산업생산 급락 후 상승세로 반전

- 전국의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차의 영향으로 인한 2월의 큰 폭 감소에서 벗어나 작년 3월에 비해 4.8%의 증가로 반전
- 이는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 IT 부문의 생산이 증가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기타운송장비(19.2%), 반도체(15.6%), 자동차(15.4%)등이 호조를 나타내 산업생산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담배(-42.9%), 사무회계용 기계(-10.5%), 비금속 광물(-9.3%) 등은 감소를 나타냄
- 전국의 산업생산은 2월의 7.3% 감소에서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산업생산은 감소세 둔화

- 서울시 산업생산은 작년 3월에 비해 2.0% 감소하였으나 2월(-15.4%)보다 감소폭이 둔화
- 서울시 산업생산은 전국의 산업생산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세부업종별로 인쇄기 등의 기타 기계 및 장비(34.1%)는 증가하였으나 귀금속 장신구 등의 가구 및 기타제품(-50.6%), 컴퓨터 및 사무기기(-20.3%)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됨

✓ 서울시의 산업생산 중공업부문 증가세로 반전, 경공업부문 감소세 둔화

- 산업구조별로 보면 중공업부문은 작년 3월보다 1.1% 증가하여 2월(-28.1%)에 비해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경공업부문은 4.8% 감소하여 2004년 1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중공업부문에서 세부업종별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가구 및 기타제품(-50.6%) 등은 감소하였으나 기타기계 및 장비(34.1%)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6.6%) 등이 증가세로 전환됨

- 경공업부문에서는 종이제품(16.2%)이 증가하였으나, 가죽, 가방 및 신발(-25.9%), 음식료품(-11.4%), 의복 및 모피제품(-4.4%) 등이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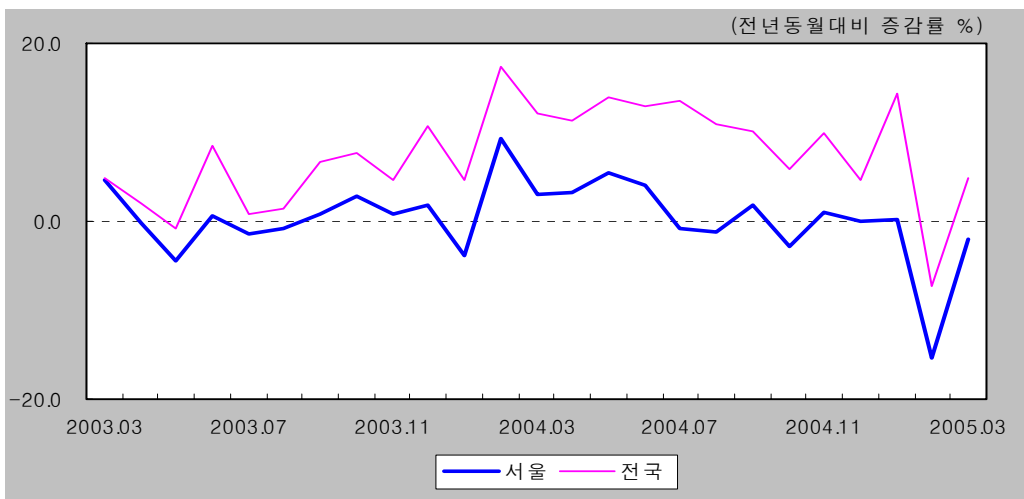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3	2004.12	2005.1	2005.2	2005.3
전년동월비	전국	12.1	4.6	14.3	-7.3	4.8
	서울	3.0	0.0	0.2	-15.4	-2.0
	중공업	13.8	11.8	2.7	-28.1	1.1
	경공업	-3.6	-5.7	-2.4	-10.3	-4.8
전월비	전국	-1.0	-0.8	3.1	-4.6	3.8
	서울	0.9	-1.1	-0.5	-7.6	11.4
	중공업	10.4	6.5	-15.9	-20.3	55.2
	경공업	10.5	-4.9	-6.7	-14.6	17.2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2005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3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서울, 전국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 · 하 |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세 둔화

✓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 증가세로 전환

-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는 작년 3월에 비해 4.3% 증가하여 2월(-6.1%)의 큰 폭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
- 이는 자동차,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 IT 부문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기타운송장비(20.4%), 반도체(15.9%), 자동차(14.6%)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비금속광물(-11.9%), 섬유제품(-9.8%)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전반적으로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는 도·소매 판매 등의 호조로 2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세 둔화

- 서울시 생산자 제품출하는 작년 3월에 비해 3.0% 감소하였으나 2월(-15.9%)보다 감소폭이 둔화
- 서울시 생산자 제품출하는 전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거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어감에 따라 아직 정체된 모습
- 세부업종별로 인쇄기 등의 기타 기계 및 장비(41.3%), 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2%)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타 전기 기계(-30.7%), 컴퓨터 및 사무기기(-20.7%), 인쇄출판(-7.5%)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서울시의 생산자 제품출하 중공업부문, 경공업부문 모두 감소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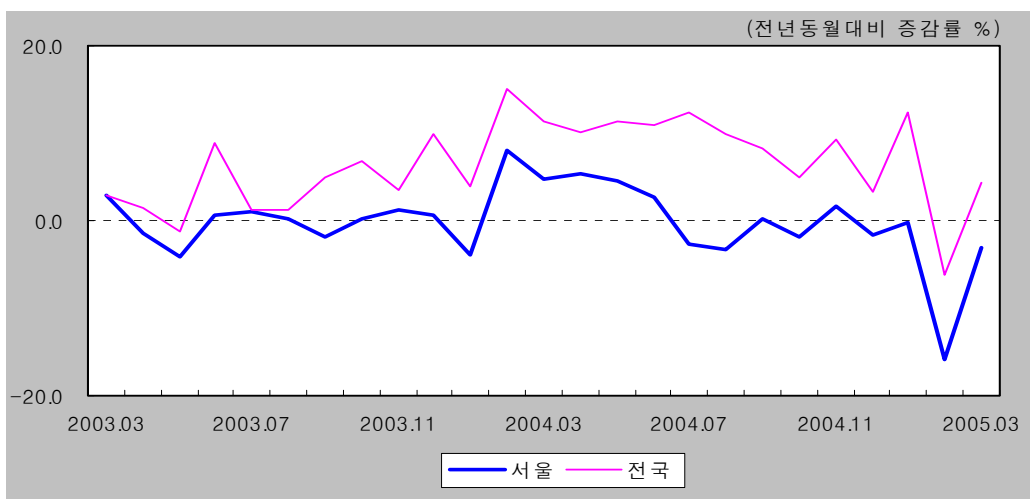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작년 3월에 비해 0.3%, 경공업부문 6.5%로 감소세 둔화
- 중공업부문에서는 세부업종별로 기타 기계 및 장비(41.3%),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2%) 등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가구 및 기타제품(-47.2%), 기타 전기 기계(-30.7%)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 경공업부문에서는 섬유제품(6.5%), 종이제품(4.9%) 등은 증가한 반면 가죽, 가방 및 신발(-32.5%), 인쇄출판(-7.5%) 등이 감소를 나타냄

〈표〉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3	2004.12	2005.1	2005.2	2005.3
전년동월비	전국	11.3	3.3	12.4	-6.1	4.3
	서울	4.8	-1.6	-0.2	-15.9	-3.0
	중공업	12.3	7.0	0.8	-27.2	-0.3
	경공업	-0.3	-6.1	-2.4	-11.7	-6.5
전월비	전국	-0.6	-1.9	3.6	-4.3	3.3
	서울	0.0	-2.9	0.9	-6.7	9.5
	중공업	9.6	1.5	-14.5	-16.7	50.1
	경공업	9.9	-1.6	-9.7	-14.1	16.4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2005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3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서울,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생산자 제품재고 소폭 상승

✓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둔화

-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작년 3월에 비해 9.2% 증가
- 이는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제1차 금속 등이 크게 증가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반도체(39.0%), 영상음향통신(35.0%), 제1차 금속(29.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생산자 제품재고의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사무회계용 기계(-30.1%), 섬유제품(-8.1%)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재고율은 99.6%로 제조업 부문의 출하지수가 재고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월에 비해 2.8%p 감소하여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월(9.3%)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음

✓ 서울시의 생산자 제품재고 소폭 상승

- 서울시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작년 3월에 비해 4.8%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제품재고(9.2%) 보다 낮은 수준임
- 세부업종별로는 칼라강관 등의 제1차 금속산업(61.1%), 기성보통외의, 소아용기성외의를 포함한 의복 및 모피제품(32.0%) 등이 증가하였음
- 반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52.9%),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포함한 고무 및 플라스틱(-43.2%), 가죽, 가방 및 신발(-32.4%)에서 감소를 나타냄
- 재고율은 134.9%로 지난달보다 15.8%p 감소하였으나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서울시의 생산자 제품재고 중공업부문은 지난달 감소폭과 동일하고 경공업 부문은 소폭상승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작년 3월에 비해 13.5% 감소하여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경공업부문은 17.5%로 2월(17.3%)에 비해 소폭 상승
- 중공업부문에서는 세부업종별로 제1차 금속산업(61.1%)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컴퓨터 및 사무기기(-52.9%) 등이 전월에 이어 감소를 나타냄
- 경공업부문에서는 의복 및 모피제품(32.0%), 섬유제품(9.8%) 등은 증가하였으나, 종이제품

(-45.1%), 가죽, 가방 및 신발(-32.4%) 등이 감소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침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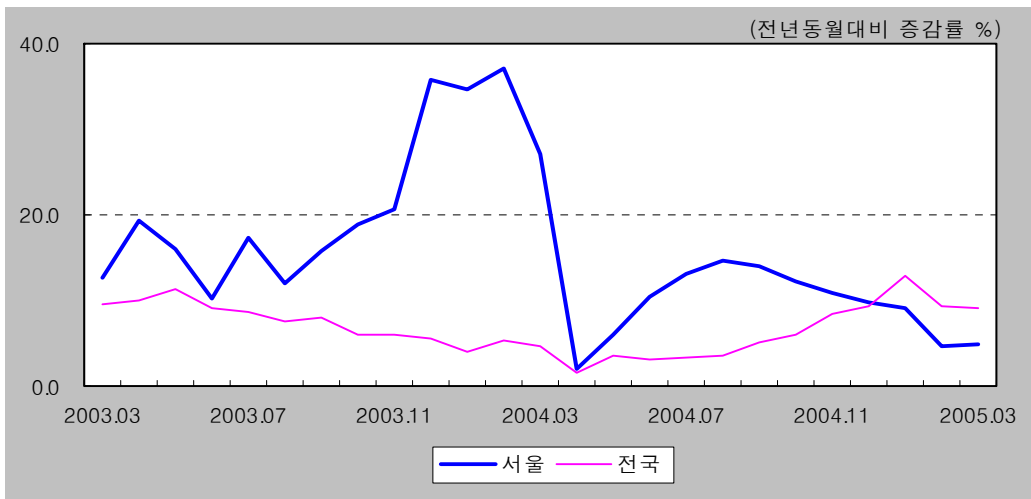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4.3	2004.12	2005.1	2005.2	2005.3
전년동월비	전국	4.6	9.4	12.9	9.3	9.2
	서울	27.0	9.8	9.2	4.6	4.8
	중공업	31.0	-8.3	-7.5	-13.5	-13.5
	경공업	24.4	23.3	21.9	17.3	17.5
전월비	전국	0.9	1.2	2.2	-0.4	0.6
	서울	-0.9	2.2	-0.5	-1.4	-2.0
	중공업	-2.6	3.2	4.8	-11.1	-2.6
	경공업	-1.0	2.1	1.0	-1.7	-0.8
재고율	전국	94.9	99.4	98.1	102.4	99.6
	서울	124.5	144.6	142.7	150.7	134.9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2005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3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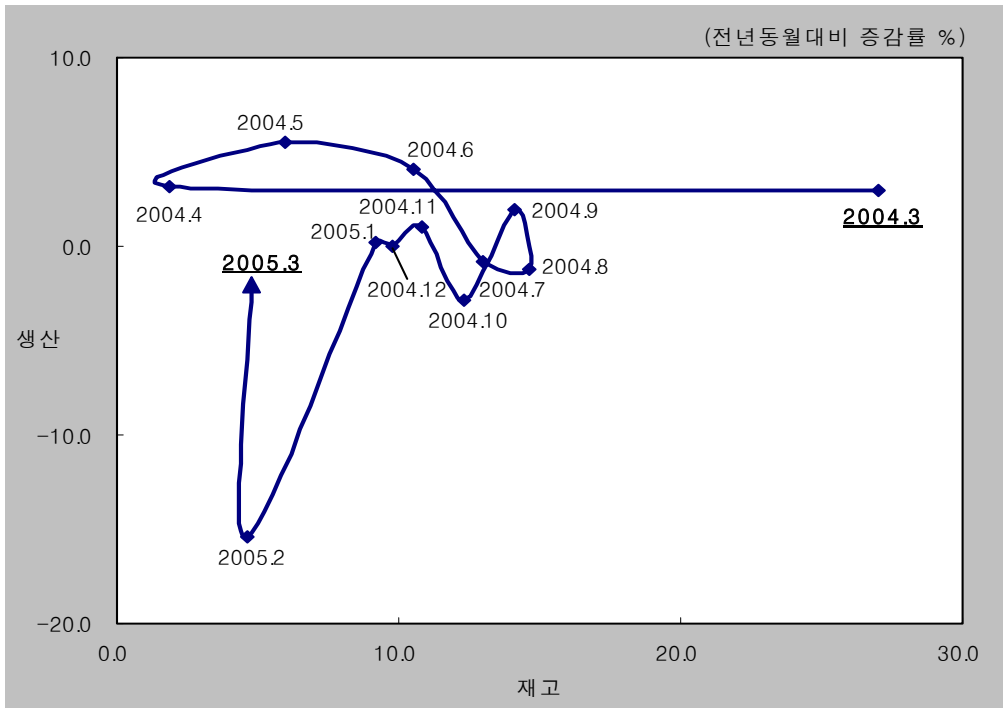


〈그림〉 서울,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경기회복 지연

✓ 서울시 경기는 3월중 하강국면 지속

- 생산·재고 증가율의 경기국면 분석에 의하면, 서울시 경기는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재고가 소폭 증가하여 경기하강국면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생산은 작년 3월에 비해 2.0% 감소하여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생산자 제품재고는 4.8%로 소폭 증가, 재고조정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생산, 재고 증감률 추이

| 취 · 업 · 자 |

서울시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전국의 3월중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전국의 취업자는 22,576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2% 증가
-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464천명으로 1.1% 감소
- 전국의 고용사정은 도소매·음식 숙박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2월(0.03%)에 이어 증가세 지속

✓ **서울시의 취업자도 증가세 지속**

- 서울시의 취업자는 4,874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4% 증가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46천명으로 0.2% 증가
- 서울시의 고용사정은 내수침체 완화 등의 영향으로 2월(0.2%)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 취업자 및 건설업 부문 고용사정 개선**

- 성별 취업자는 남성이 2,834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3%, 여성이 2,041천명으로 1.5% 증가
- 산업별로는 건설업(4.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 도소매·음식숙박업(0.3%) 등이 상승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1.0%의 증가를 나타냄
- 그 외, 제조업이 3.2%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은 0.0%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이는 최근의 내수침체 완화 조짐과 건설경기 회복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및 임금근로자 증가**

- 직업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4.3%), 사무 종사자(1.2%), 서비스·판매종사자가(0.2%)가 증가한 반면, 전문·기술·행정 관리자(-0.2%)는 감소를 나타냄
-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3.8%), 임시근로자(1.7%), 상용근로자(0.6%)가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1.5%의 증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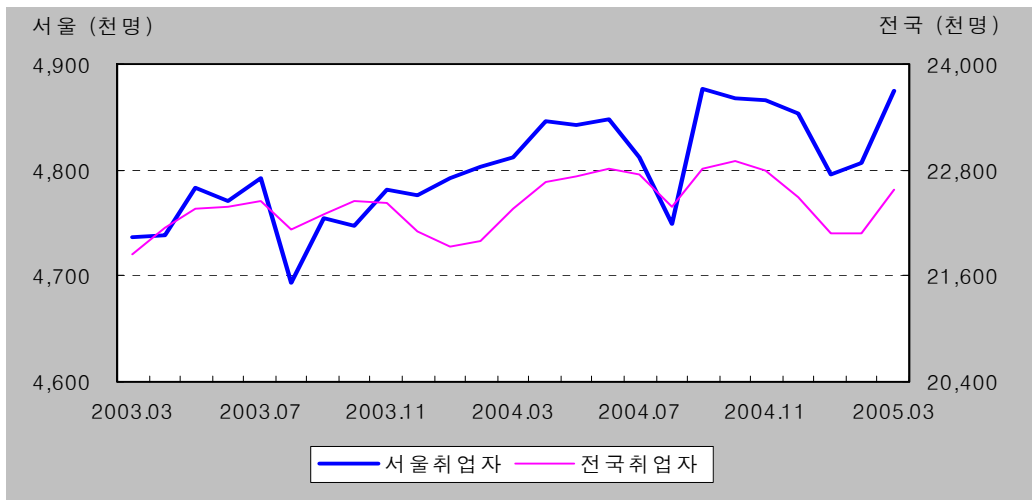
-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6.3%), 자영업주(0.2%)가 상승하여 1.1%의 증가를 보임

〈표〉 2005년 3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구 분	2004.3	2005.2	2005.3	전 년 동 월 비		전 월 비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감	
취 업 자	전국	22,371	22,086	22,576	0.9	205	2.2	490
	청년층(15~29)	4,535	4,514	4,464	-1.6	-71	-1.1	-50
	서울	4,812	4,807	4,874	1.3	62	1.4	67
	청년층(15~29)	1,136	1,144	1,146	0.9	10	0.2	2
농림어업	8	3	3	-67.9	-6	0.0	0	
광공업	808	793	818	1.2	10	3.2	25	
제조업	807	793	818	1.4	11	3.2	25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996	4,011	4,054	1.4	58	1.0	42	
건설업	415	393	409	-1.4	-6	4.2	17	
도소매·음식숙박	1,455	1,423	1,428	-1.9	-27	0.3	5	
사업개안·공공서비스	1,607	1,671	1,690	5.2	83	1.2	20	
전자운수·통신·금융	518	525	526	1.5	8	0.2	1	

자료: 통계청[2005년 3월 고용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3월중 서울시 고용동향]



〈그림〉 서울, 전국 월별 취업자 동향

| 실·업·자 |

실업률 소폭 개선

✓ 전국의 3월중 실업자 감소세로 반전

- 전국의 실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1만 8천명 감소한 907천명으로 2.0% 감소
- 실업률은 3.9%로 전월보다 0.1%p 감소하여 고용사정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반면, 1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23천명으로 2004년 4/4분기에 비해 11.7%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8.6%로 0.9%p 증가

✓ 서울시의 실업자도 감소세로 반전

- 서울시의 실업자는 253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5.0% 감소하여 200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
- 실업률은 4.9%로 전월보다 0.3%p 감소하였으나, 전국에 비해 1.0%p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 서울의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실업자 및 실업률의 감소는 최근의 내수침체 완화와 정부의 고용대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반면, 1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122천명으로 2004년 4/4분기에 비해 17.1%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9.7%로 1.3%p 증가

〈표〉 2005년 3월 실업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04.3	2005.2	2005.3	전 년 동 월 비		전 월 비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전국	실업자	879	925	907	3.2	28	-2.0	-18
	(실업률)	(3.8)	(4.0)	(3.9)	-	(0.1)	-	(-0.1)
서울	실업자	246	266	253	3.0	7	-5.0	-13
	(실업률)	(4.9)	(5.2)	(4.9)	-	(0.0)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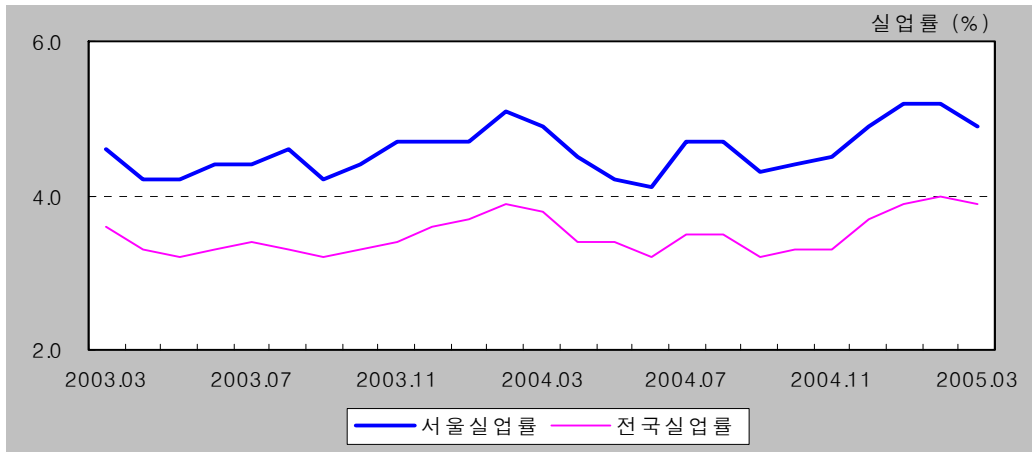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5년 3월 고용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3월중 서울시 고용동향]

〈표〉 2005년 3월 청년층(15~29세) 실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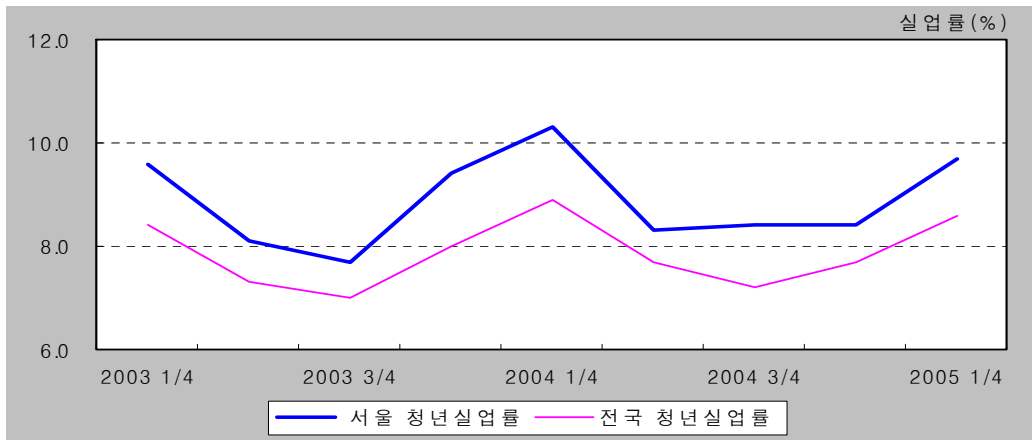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p)

구 분	2004 1/4	2004 4/4	2005 1/4	전년동기비		전 분기비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전국	청년층 실업자 (실업률)	448 (8.9)	378 (7.7)	423 (8.6)	-5.7 -	-25 (-0.3)	11.7 -	45 (0.9)
서울	청년층 실업자 (실업률)	133 (10.3)	105 (8.4)	122 (9.7)	-7.8 -	-11 (-0.6)	17.1 -	17 (1.3)

자료: 통계청[2005년 3월 고용동향]



〈그림〉 서울, 전국 실업률 추이



〈그림〉 서울, 전국 청년층(15~29세)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소비자물가 상승세 유지

✓ 전국의 3월중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8% 상승하여 2월(0.6%)에 이어 다소 높은 상승세를 기록
- 이는 신학기를 맞아 각급학교 납입금, 학원비 등 공공 및 개인서비스 부문이 오르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에 기인함

✓ 서울시의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서울시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6% 상승
-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유가와 교육비 인상 등의 영향이 지속되어 최근 3개월 연속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신학기 등록금과 학원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부문 소폭 상승

- 상품성질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 등의 상품부문은 0.5%,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부문은 0.7% 상승
- 비목별로는 주거비와 기타잡비(-0.2%) 모두 하락하였으나, 각급학교 납입금과 학원비가 인상된 교육부문(2.9%), 가구집기·가사용품(1.7%), 석유류가 오른 광열·수도 부문(1.4%) 등이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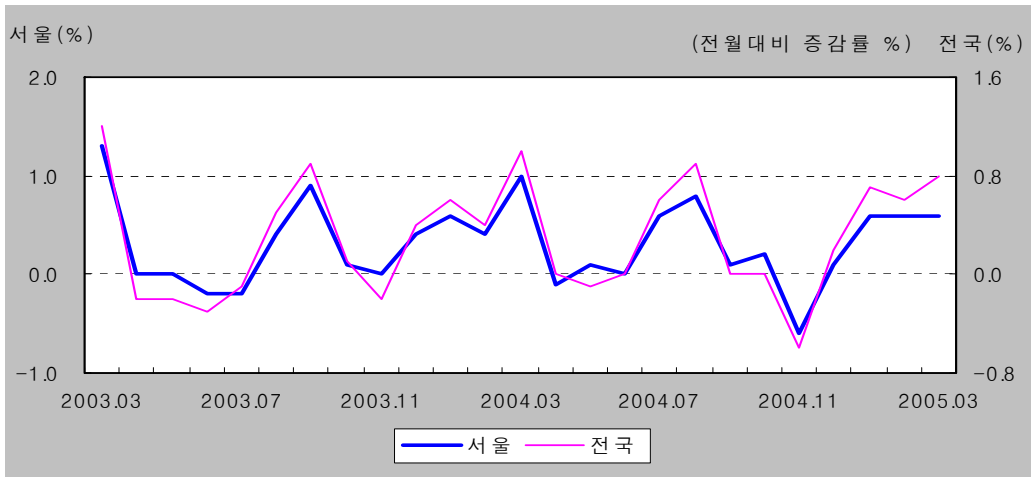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위주로 하는 생활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1.1% 상승
- 계절적 변동이 큰 어개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채소(1.8%)와 과일류(1.8%) 상승의 영향으로 1.6% 증가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 단위: %)

구 분		2004.3	2004.12	2005.1	2005.2	2005.3	
전년동월비	전국	3.1	3.0	3.1	3.3	3.1	
	서울	3.6	3.2	3.2	3.3	2.9	
	성질별	상품	3.3	3.5	3.8	4.3	4.0
		서비스	3.8	2.9	2.8	2.7	2.2
	생활물가	4.3	4.9	5.1	5.3	4.8	
	신선식품	9.5	1.4	0.8	5.1	6.4	
전월비	전국	1.0	0.2	0.7	0.6	0.8	
	서울	1.0	0.1	0.6	0.6	0.6	
	성질별	상품	0.8	-0.2	1.2	1.2	0.5
		서비스	1.1	0.3	0.2	0.2	0.7
	생활물가	1.6	0.0	1.0	0.9	1.1	
	신선식품	0.4	-1.8	2.7	7.0	1.6	

자료: 통계청, [2005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 동향]



〈그림〉 서울, 전국 소비자물가 장기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세 지속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하락세 지속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 예상,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시중자금의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해 월중반까지 완만한 하락세 지속
- 하순 들어 미국 정책금리 인상 영향으로 반등했으나, 2월중 국내산업활동 부진 발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의 약화 등으로 하락하여 3.91%로 마감
- 국고채 발행규모는 2월 3.03조원에서 3월 3.79조원으로 소폭 증가

✓ 회사채 수익률도 하락세

- 회사채 수익률(3년)은 월초 4.63%까지 상승한 이후 국고채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어 지난 달에 비해 0.15%p 하락한 4.34%를 나타냄
- 회사채 발행규모는 2월 4.77조원에서 3월 5.43조원으로 소폭 증가
- CD(91일)는 지난달에 비해 0.01%p 하락한 3.54%를 기록
- 콜금리(1일)는 지난달에 비해 0.02%p 하락한 3.26%를 기록

✓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

- 장·단기 금리차는 월초반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0.99%p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장기금리 하락세로 인해 0.65%p로 마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 %p)

구 분	2004.6	2004.9	2004.12	2005.1	2005.2	2005.3	전월비
국고채(3년)	4.24	3.53	3.28	4.06	4.04	3.91	-0.13
회사채(3년)	4.84	4.03	3.72	4.53	4.49	4.34	-0.15
CD(91일)	3.93	3.54	3.43	3.57	3.55	3.54	-0.01
콜금리(1일)	3.78	3.55	3.29	3.26	3.28	3.26	-0.02
장·단기 Spread	0.46	-0.02	-0.01	0.80	0.76	0.65	-
종합주가지수	785.79	835.09	895.92	932.70	1,011.36	965.68	-45.68
코스닥	385.18	362.08	380.33	472.95	498.38	455.03	-43.35
환률(\US\$)	1,155.5	1,151.8	1,035.1	1,025.6	1,006.0	1,015.5	9.5

주: 장·단기 Spread: 국고채-call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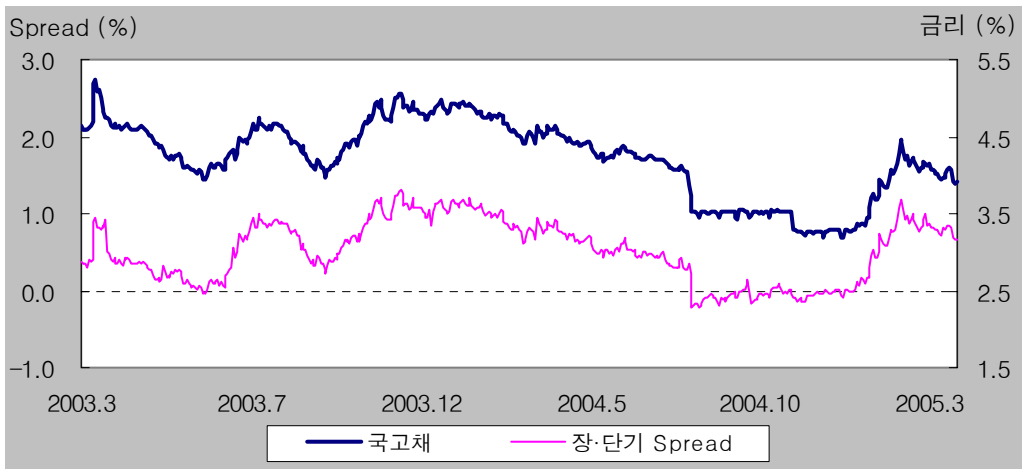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05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 주가는 3월 중반이후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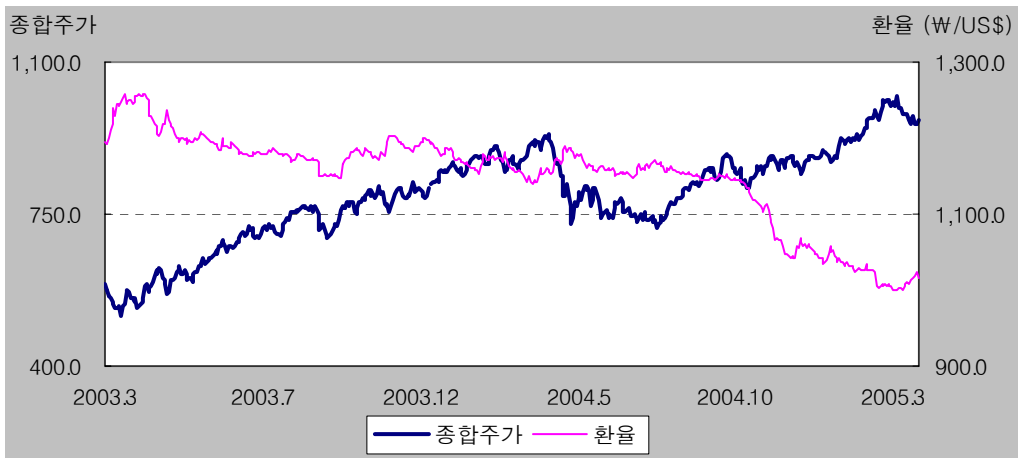
- 종합주가지수는 월초 시중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연중 최고치인 1,022p 까지 상승
- 이후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미국 연방기금금리(FFR) 인상,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2월말 보다 45.68p 떨어진 965.68p 기록
- 코스닥지수도 종합주가지수와 동반 하락하여 2월말 보다 43.35p 감소한 455.03p 기록

✓ 원/달러 3월 중순까지 횡보 후 급등

- 원/달러 환율은 월중순까지 1,000선에서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임
- 이후, 미국 연방기금금리(FFR) 인상 결정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3월말에 1,015.5를 기록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업·동·향 |

신설법인수 증가

✓ 서울시 3월 신설법인수 증가

- 서울시 신설법인수는 1,925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34.0% 증가하여 2월의 낮은 창업수준에서는 벗어나 작년 3월의 창업수준을 회복
- 하지만, 서울시 신설법인의 증가 폭은 전국 신설법인의 증가 폭(44.0%)보다 낮음

✓ 제조업의 신설법인수 증가

- 제조업의 신설법인수는 181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69.2% 증가
- 세부업종별로는 대부분 제조업의 신설법인수가 증가한 가운데 음식료품(280.0%), 전자·전자 및 정밀기기(58.1%), 섬유 및 가죽(57.1%)등이 큰 폭으로 증가

✓ 건설업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수 증가

- 건설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수는 161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34.2% 증가
- 세부업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11.1%)과 건설업(27.9%) 모두 증가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 증가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는 1,580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30.6% 증가
- 세부업종별로는 대부분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가 증가한 가운데 운수업(121.6%), 부동산 및 임대업(60.8%), 사업서비스업(22.6%), 도매 및 소매업(22.1%)등이 큰 폭으로 증가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 %)

구 분	2004.3	2005.2	2005.3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677	3,690	5,315	638	13.6	1,625	44.0
서울	1,965	1,437	1,925	-40	-2.0	488	34.0
제조업	259	107	181	-78	-30.1	74	69.2
건설 및 설비업	182	120	161	-21	-11.5	41	34.2
서비스업	1,522	1,210	1,580	58	3.8	370	30.6

자료: 중소기업청, [2005년 3월 신설법인 동향]

| 어 · 음 · 부 · 도 · 율 |

어음부도율 안정세 유지

✓ 서울시 3월 어음부도율은 감소

- 서울시 어음부도율은 0.03%로 지난달에 비해 0.02%p 감소하여 작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 유지
- 서울시 어음부도율은 전국 어음부도율 0.04% 보다 낮은 수준임

✓ 서울시 3월 부도업체 수는 증가

- 서울시 부도업체 수는 151개 업체로 지난달 보다 53개 업체 증가
- 전국 부도업체 수는 359개 업체로 지난달 보다 99개 업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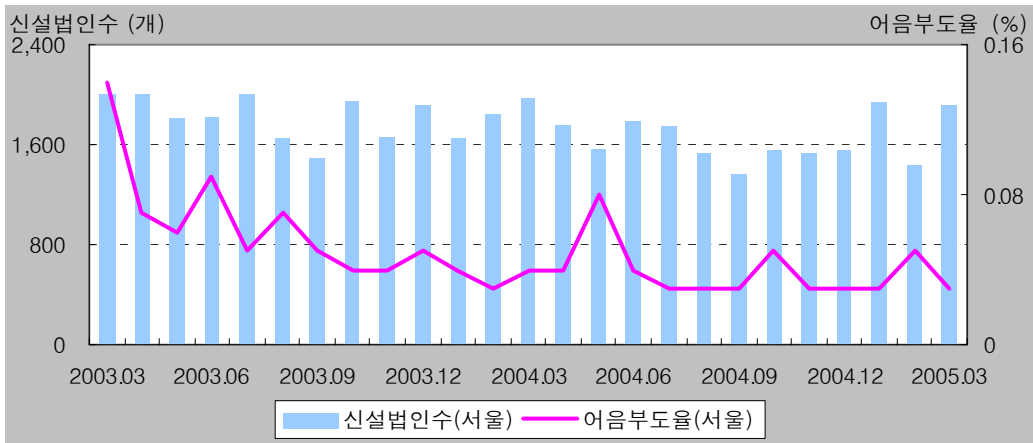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 %, %p)

구 분		2004.3	2005.2	2005.3	전년동월비 증감	전월비 증감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6	0.04	-0.02	-0.02
	부도업체 수	391	260	359	-32	99
서울	어음부도율	0.04	0.05	0.03	-0.01	-0.02
	부도업체 수	130	98	151	21	53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05년 3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그림〉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건 · 설 · 경 · 기 |

서울시 건설경기 하락세 지속

✓ 서울시 건축허가면적은 2005년 3월에도 하락세 지속

- 서울시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3월에 비해 14.6% 감소하여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 반면,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인천(167.8%) 등의 증가로 인해 작년 3월에 비해 5.6% 증가

✓ 아파트 건축허가면적의 큰 폭 상승

- 건축허가면적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3월에 비해 큰 폭(120%)으로 증가하는데 힘입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72.8% 증가
- 이에 비해,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3월에 비해 큰 폭(-37.2%)으로 감소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감소는 상업부문과 공업부문의 큰 폭 감소에 기인함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4.3	2005.1	2005.2	2005.3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9,145	8,402	5,622	9,653	5.6	71.7
서울		1,742	699	799	1,488	-14.6	86.2
주거용	소계	358	112	69	619	72.8	792.5
	단독	18	8	7	12	-32.7	79.0
	연립	84	25	21	43	-48.5	104.4
	아파트	256	79	41	564	120.0	1,261.8
비주거용	소계	1,384	587	730	869	-37.2	19.0
	상업	969	416	499	471	-51.4	-5.5
	공업	136	6	1	14	-89.7	2,338.9
	문교/사회	216	150	226	248	14.7	9.7
	기타	63	16	5	136	115.8	2,795.7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2005년 3월분 건축허가통계]

✓ 서울시 대부분 지역의 하락세 속에 강남구 및 마포구의 건설경기 호조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대부분 구에서 감소한 반면 강남구(1,189.4%), 마포구(1,181.7%), 동작구(267.0%), 용산구(239.7%)에서 큰 폭으로 증가
-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양천구(833.0%), 노원구(247.5%), 중구(48.8%)가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건설발주액은 소폭 하락

- 서울시 건설발주액은 지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3.0% 감소하여 하락세로 전환
- 반면, 전국 건설발주액은 작년 3월에 비해 72.7% 증가하여 큰 폭 상승 시현

✓ 공공발주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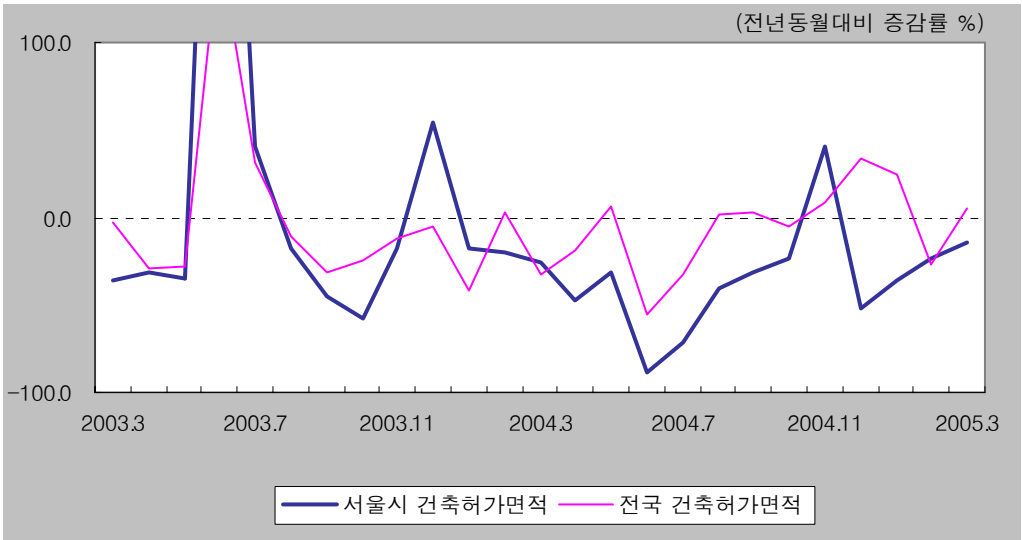
- 민간 발주는 소폭 감소(7.8%) 한 반면 공공 발주는 큰 폭으로 감소(78.4%) 한 것으로 나타남
- 토목공사 발주는 55.6% 증가한 반면 건축공사 발주는 6.6% 감소하여, 토목부문의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건설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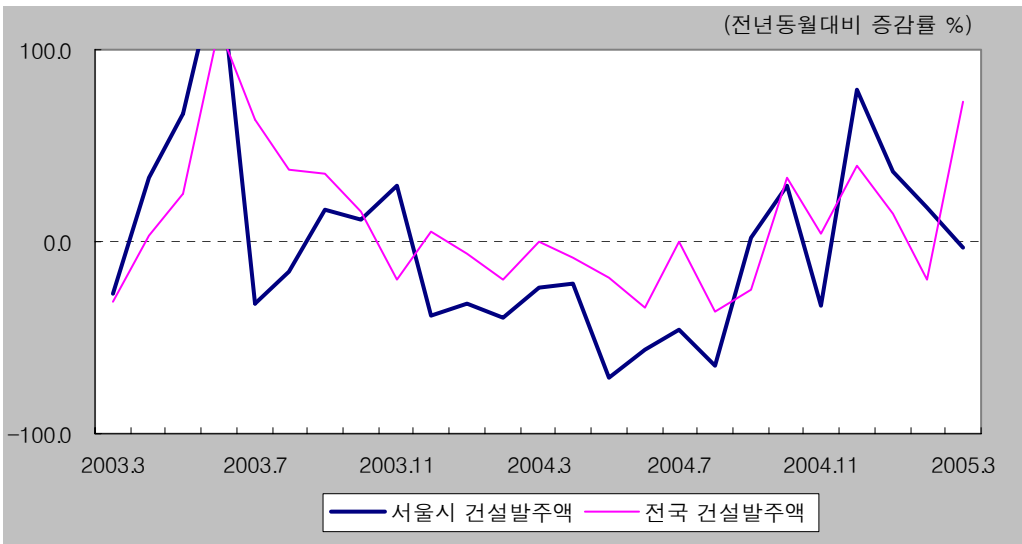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3	2005.1	2005.2	2005.3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5,285,460	5,272,182	3,709,057	9,128,285	72.7	146.1
서울		1,156,005	989,382	745,264	1,121,746	-3.0	50.5
발주자별	공공	79,960	155,766	32,211	17,293	-78.4	-46.3
	민간	1,051,090	827,226	713,053	969,580	-7.8	36.0
공종별	건축	1,082,481	810,232	716,280	1,010,739	-6.6	41.1
	토목	47,722	151,460	28,716	74,254	55.6	158.6

자료: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3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건축허가면적 서울, 전국 비교



<그림> 건설발주액 서울, 전국 비교

| 주 · 택 · 가 · 격 |

부동산 시장 상승세 지속

✓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 지속

-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2월에 하락세에서 반전한 후 2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 봄 이사철의 계절적요인과 향후 주택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0.3% 상승
-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4%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강북, 강남 지역 전반적 상승세

- 강북, 강남의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강남은 0.4% 상승폭을 보임
- 구별로는 강남 지역 가운데 서초구(1.4%), 용산구(1.0%), 영등포구(0.9%), 은평구(0.9%)의 상승폭이 커 눈길을 끌었음.
- 반면 관악구(-0.9%), 강동구(-0.2%), 광진구(-0.1%)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 지속

-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5% 상승
-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6%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3	2004.12	2005.1	2005.2	2005.3
전국	0.2	-0.4	-0.3	0.3	0.4
서울	0.5	-0.4	-0.3	0.6	0.3
아파트(서울)	0.6	-0.4	-0.3	1.0	0.5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3	-0.4	-0.3	0.2	0.3
강남	0.7	-0.5	-0.3	1.0	0.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2005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높음

- 지역별로는 강남이 0.7% 상승하여 강북의 0.3% 상승폭 보다 높음
- 구별로는 대부분의 구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서초구(2.0%), 용산구(1.3%), 영등포구(1.2%), 송파구(0.8%)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큼
- 반면, 강동구(-0.5%), 노원구(0.1%), 서대문구(0.1%), 중랑구(0.1%), 관악구(0.1%)는 하락 혹은 소폭 상승함

✓ 서울시 주택전세가격은 소폭 상승

- 서울시의 전세가격은 2월에 이어 0.1% 상승하여 소폭 상승세
- 서울시 주택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4%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강북 주택전세가격 상승폭(0.2%)이 강남의 상승폭(0.1%)보다 조금 높음
- 구별로는 구로구(0.8%), 도봉구(0.6%)의 상승폭이 크고, 강동구(-0.9%), 강북구(-0.6%)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상승세

-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3월에 0.3% 상승
-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7%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강북 주택전세가격 상승폭(0.3%)이 강남의 상승폭(0.2%)보다 조금 높음
- 구별로는 동작구(1.3%), 구로구(1.1%), 용산구(1.1%)의 상승폭이 크고, 강동구(-1.1%), 송파구(-0.3%)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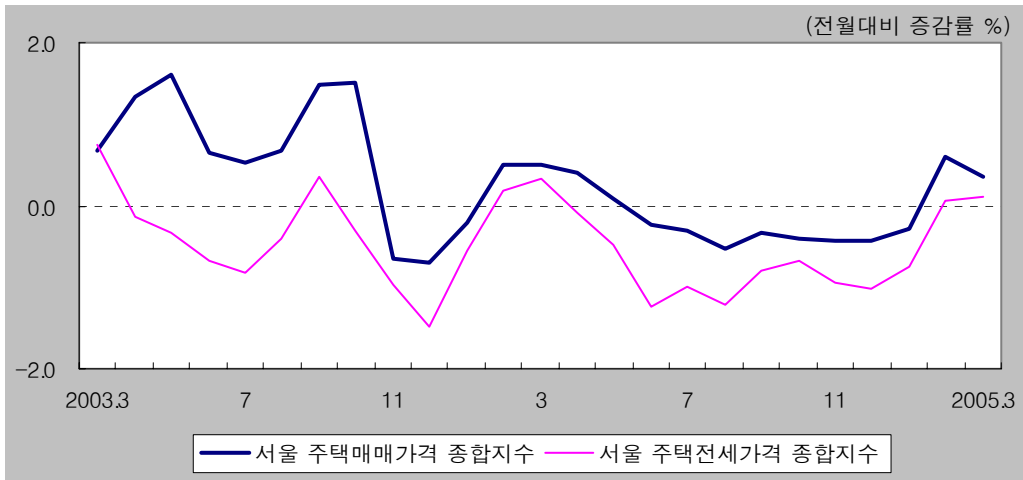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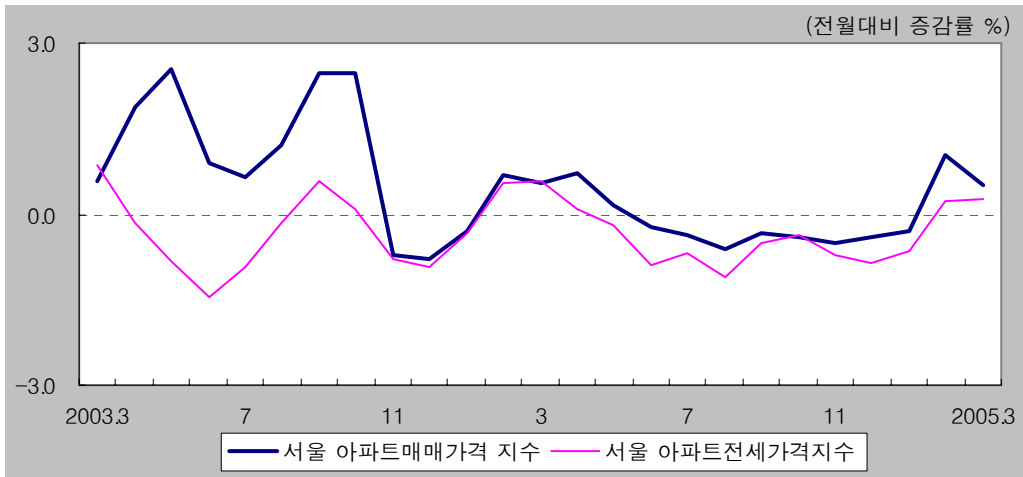
구 분		2004.3	2004.12	2005.1	2005.2	2005.3
전국		0.4	-0.8	-0.5	0.2	0.4
서울		0.3	-1.0	-0.7	0.1	0.1
아파트(서울)		0.6	-0.9	-0.6	0.2	0.3
지역별	강북	0.2	-1.0	-0.8	-0.1	0.2
주택전세	강남	0.5	-1.0	-0.7	0.2	0.1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2005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